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11. 바울서신

D.P.Joshep 2010-06-07 22:56:47

조회 34 스크랩 0

신약성서에서는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서는 무려 13편이나 되는 바울의 편지들이 나옵니다. 신약성서에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부분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글에 대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을 잘하였던 맛있는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말은 잘못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성격으로나 외모로 보나 그렇게 매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잘 사용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다음 성서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로마의 서신들인데, 모두 같은 시기에 써졌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기상으로 가장 먼저 써졌던 것부터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써졌던 시기나 그 시대의 분위기도 생각을 해보면서 읽게 된다면 더 이해하기 쉽게 읽혀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쓴 갈라디아서부터 가장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까지 읽어보면 오랜 시간동안에 바울의 신학적 사상이나 인간적인 성품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원론, 교회론, 재림론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 지기도 하며, 넓어지거나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초기, 중기, 후기로 시기를 통해서 나누어 질 수 있는 데, 초기서신은 AD 48년도부터 57년도 까지 쓰여 졌던 서신들로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필이 아닌 자신이 직접 쓸 정도로 바쁜 시기였고,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앙이나 성품이 계속적으로 익어가는 중이라서 가끔씩은 서신서에 바울 자신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곧 다가올 종말 때문에 복음에 대한 다급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기서신은 AD 60년부터 62년까지 써졌던 서신으로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속합니다. 유대주의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은 바울은 자신 신분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는 데, 그 시기에 이 중기서신들이 쓰여 졌습니다. 그렇기에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회고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이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론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이 성서들은 회람서신으로 수신자가 한 교회만이 아닌 성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모든 교회에게 퍼지기를 바라던 성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격려의 서신이며, 빌레몬서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에 대한 변호 편지입니다. 후기서신은 로마에서 출옥한 후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순교 당하기 전까지 쓰여 진 서신서로서 AD 62년부터 67년까지 쓰여 진 성서입니다. 후기서신은 목회서신이라 부르는 데, 자신의 영적인 자식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목회에 대한 조언이나 지침이었습니다.

다시 초기서신과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각 학자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AD 33년경에 바울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던 바나바에 의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때의 복음 원정대의 리더는 바나바이기에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요한이 그 일행에 합류하게 되고 파포스에서 그들은 키프로스 지역의 로마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총독의 옆에는 거짓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총독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버가'라는 도시를 지나간다. 이 도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요한이 전도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은 따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전도여행에는 계속적으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앓은뱅이를 고치는 등에 주의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

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의 능력으로서 보게 됩니다. 이에 분개한 바울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유대주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돌을 맞는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고향이 가깝기에 그곳으로 가서 몸을 치유할 법 한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서에 있는 갈라디아서가 이 지방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성서인데, 이 성서의 주요 내용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조가 드러납니다. 당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바울이 주장하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지낸 사람들만이 사도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도 맞디아가 채운 시기이기에 논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도 조금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사도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랍비나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교회내의 이방인 출신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제어하는 목적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바울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며 강하게 질책하며,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위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문제들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들을 편지를 통하여서 각 이방 교회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역할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기었고, 유다와 실라를 공증인으로서 보내었습니다. 위 결과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끝 무렵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이탈한 마가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가에 대한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온유하고 포용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마가요한을 용서하기를 원했지만, 사역의식이 너무나 투철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요한은 다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길기리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난 부분도 자체 삭제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려면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의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가요한을 용서하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훗날 더욱 신앙과 성품이 성숙한 바울은 마가에게 미안해하였으며, 그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바울과 실라는 루스더라를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나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사역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번째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들린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주었는데, 이를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신실하게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옥문을 지키던 병사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으려 하였지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옥문 지킴이는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바울 일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 그들은 '베뢰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신기해하며 빠져들었고 바울은 그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를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곳까지 쫓아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항구가 2개나 있고 인구가 75만인 꽤 큰 도시입니다. 그 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만나서 1년 반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로서 돈을 벌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 곳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서에서는 믿음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순하게 잘 믿다보니 그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따뜻한 권면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서의 사역 이후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 지방의 교회를 맡기고 가이사랴를 지나 안디옥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들을 잘 살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항상 큰 도시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울도 곧 다가올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의식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다급함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로마로 끌려가고 나서 재정립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23절에 바로 제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편,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역하던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에게 착실하게 성경공부를 사사 받고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어서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주님의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파적 다툼에 대한 부분과 교리에 대한 충고를 적은 서신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기는 하였지만 완벽히 신앙이나 성품이 성숙하지는 못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그리고 상처 받을 수도 있을 만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4장 16절에서는 지나친 영적 자신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5장에서는 음행을 지적하였고, 6장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송을 거는 부분,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직은 금방 오게 될 종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도 음행에 대한 유혹을 못 이기겠으면 차라리 결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것,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11장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12장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한 지역으로서 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과 시기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며 사랑이 없이는 다른 은사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 서신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졌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하였고 그와 더불어 간질병과 같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외모에 대한 것도 바울을 비난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후서는 한 개의 편지가 아니라 두 개의 서신을 편집한 서신서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가 쓰여진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한 서신서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또 다른 서신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불편해하는 마음을 보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연약함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한 사도권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 대한 경쟁의식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도 베드로와의 비교도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이 이 후의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나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변호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다하는 바울이지만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아픔도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도 처음부터 성화되었던 사도는 아닌 것을 느끼면서 위로와 함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이후 구절의 서신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2차 전도여행 때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디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굿뉴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에 대한 오해는 모두 풀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전반 서신서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도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재정적은 도움을 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언급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에서 말했던 데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체류하였는 데, 그 때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당시, 문화와 경제 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에는 아직은 교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도 많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의미 등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와 구원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12장부터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 속한 모범적인 시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돌아오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곳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을 뻔한 '유두고'에 대한 에피소드도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정이 바쁘기에 에베소 교회를 둘러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게 되었던 바울은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역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지만 주의 사람에 대한 마음과 그들과의 교제에 대한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빌립 집사에 거하면서 교제를 하는 데, 그 곳에서 '아가보'라는 자가 바울에게 예언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이야기 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모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병사 천부장으로 인해서 구출되고 바울은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천부장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의회, '벨릭스' 유대 총독, '베스도'라는 또 다른 유대 총독 그리고 '아그립바'라는 분봉왕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회심이나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에서 그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로마로 후송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을 정리하고 회고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신학관이나 교회론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 후송으로 사도행전은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로 '아클로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라는 의미로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퍼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